

한국에너지공대 핵심시설 공정 '5부 능선' 넘었다

개교 3개월 앞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준공...교원 37명 확보 '4배수' 수시면접 최종합격 16일 발표...창의성 면접 호평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켄텍) 핵심시설 공정이 '5부 능선'을 넘겼다.

지난 4일 '4배수 이상'을 대상으로 펼친 수시면접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한다.

7일 한국에너지공대에 따르면 5000㎡ 규모 본교 핵심시설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 50%를 넘겼다. 캠퍼스 건축은 개교를 위한 핵심시설을 우선 건축하고 본관동 건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핵심시설의 경우 내년 2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관동 3만㎡는 올 8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임시 사용승인 받아 2024년 준공하는 일정이다.

대학원생 연구시설로 쓰일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준공을 완료했다.

대학원생은 본교 캠퍼스에서 약 10km 떨어진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의 일부(3300㎡)를 임대해 연구실 및 실험실로 활용한다.

한국에너지공대가 확보한 교원은 10월31일 기준

37명이다. 교원은 정교수 22명, 부교수 7명, 조교수 8명으로 구성됐다.

나노다공성 탄소물질 분야 세계적 석학인 유용석학교수(전 카이스트 특훈교수)와 교육공학 학술단체 AECT로부터 수상한 김경 교수(교육혁신센터장)가 대표적이다.

대학은 오는 2022년까지 교수 60명, 2025년까지는 100명의 교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교직원원은 36명이 채용된 상태다.

교사(敎舍), 교원(敎員)과 함께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은 오는 16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종일 면접을 치른 수시전형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날 16일 오후 6시 이후 발표된다.

면접 대상자는 수시정원(100명)의 '4배수 이상'으로, 추가 합격자 1~2차 발표는 같은 달 21일과 23일 각각 이뤄진다. 추가 합격자 대상은 2배수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전형 합격자는 1단계 서류평가(50%)와 2단계 면접평가(50%)를 철



지난 4일 서울시 서초구 한 호텔에서 치러진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공학부 수시면접 대기공간에서 지원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 제공>

반씩 반영해 선발된다.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다수' 면접을 위해 이날 동원된 면접위원은 92명에 이른다. 30% 가량은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였으며, 나머지는 다른 대학 공학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면접위원은 면

접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집체 교육을 받은 뒤 밤 10시까지 학생부 기반 면접 문항을 출제했다.

전례 없는 '창의성 면접'을 치른 응시생들의 반응은 신선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창의성 면접'은 카드와 문제지를 골라 30분 동

안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분석한 뒤 25분 동안은 면접위원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면접위원과 지원자가 분리되지 않고 한 책상에 앉아 문제를 함께 풀아가는 방식이다. 이날 학생들은 주어진 25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면접을 마치거나, 준비시간 30분 동안 제시된 카드 그림과 예시문, 관련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고 면접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응시 태도를 보였다.

장광재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센터장은 "뻘한 생 거부(생활 기록부) 관련 질문보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낀 것 같다"며 "한국에너지공대의 창의성 면접은 에너지기술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는가를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6일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과 협약을 맺고 두 대학 간 자원과 시설 공유를 함께하기로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미래혁신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위원회 중심으로 교육, 인력, 연구 개발, 기술, 국제교류 부문 협력을 이어간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남대학교 등 지역 다른 대학과도 교류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 탄소중립 실천 나서

aT·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등 협약

'2021년 탄소중립주간'(6-10일)을 맞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포함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업 관련기관 5곳은 aT 본사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에 협력하기로 한 기관들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 ESG 가치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들 기관은 각자 ESG경영 실천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51%까지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학교, 일반 국민, 외식업체까지 확산한 사례를 공유하며 각 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신설한 탄소중립연구단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7일 나주 혁신도시 농업관련 이전기관 5곳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필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관리이사,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춘진 aT 사장,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덕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 <aT 제공>

관련 정책 논의 등 현황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식물성 대체육류로 만든 K-만두 수출 성공 사례와 전기·수소 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농업 모델 리터 개발계획을 공유했다.

농어촌공사는 공사 저수지 활용 40MM이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및 농어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지원 등 농어촌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농업분야 탄소중립과 관련 추진 중인 주요 교육 내용을 안내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먹거리와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기관들이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력공기업 한전KDN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임직원 모두 자체 캠페인 'KDN 에코라이프'에 동참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은 지난달 3일 'KDN 에코라이프' 환경실천서약서를 쓰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약에 동참한 직원은 전체 70%가 넘는다. 같은 달 17일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행사를 벌여 이 제도 가입을 독려했다.

또 '우리 부서 미니정원'이라는 운동을 벌여 부서원들이 실내 공기정화식물을 키운 뒤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캠페인 첫날 선착순 참가자 500명이 하루 만에 다 모아지기도 했다. 걷기 운동의 하나로 '5만보 클럽'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출퇴근 차량 이용을 줄이고 임직원 건강 증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전KDN,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최우수상

사학연금은 우수상 수상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감사원 주관 '2021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진행된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한전KDN은 최우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667개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하고 자체감사할

등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한전KDN은 신사업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와 사전감사에 집중해 손실과 위험도를 최소화했다. 신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읍, 문경, 제주 등 전국 각지 시설과 제조업체, 전문가를 방문하는 등 3년여에 걸친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학연금은 사전컨설팅 분야에서 카메룬 국제외국인 교직원 자녀의 유족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노력과 실적을 인정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남아공 츠와네 공과대 재학생에 장학금 기부

29명에 1억4천만원 전달

한전KPS가 아프리카 발전사업 매출 일부를 현지 인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한전KPS는 지난 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츠와네 공과대학 재학생 29명에게 총 1억4000만원 상당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재학생 한 명당 480만원 상당 장학금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박철주 주남아공 대한민국의사와 츠와네 대학 학장, 신용래 한전KPS 남아공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 대상에는 2-4학년 재학생 중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차세대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가

능성이 높은 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번 수여식은 남아공 현지 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발생한 매출액의 약 1.25%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마련했다.

한전KPS는 지난 4월 남아공전력공사(Eskom)의 정비전문 자회사인 ERI 계획에방정비 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마블라 2호기' 600MW 화력발전소 정비 공사를 포함 총 111억원 규모의 24개 공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박철주 대사는 이날 수여식에서 "이번 한전KPS의 장학금 기부는 양국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